

## - 녹취록 -

## 반자본주의신당(NPA)

발표 : 프랑수아 쿠스탈(François Coustal) 반자본주의신당 대외언론담당

토론 : 이상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김장민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사회 : 황혜로 21세기코리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황혜로** : 반자본주의신당 정책에 대해서 발제해 줄 반자본주의신당 대외언론담당 프랑수아 쿠스탈이다. 박수로 시작하겠다.

**쿠스탈** : 초대해주어 감사하다. 우리당인 반자본주의신당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반자본주의신당은 2009년 2월에 창당한 몇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정당이다.

창당했을 때 언론은 우리 당에 2가지 별명을 붙였다. 당수인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워낙 유명하니까 ‘올리비에 브장스노의 당’, 내지는 그 전에 해산되었던 ‘혁명적공산주의동맹의 후속당’, 이렇게 2가지로 표현했다. 이 별명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왜냐하면 현재 반자본주의신당은 과거 혁명적공산주의동맹보다 3배나 규모가 큰, 어찌 보면 또 다른 당이기 때문에 혁명적공산주의동맹의 후속당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반자본주의신당을 NPA로 줄여서 말하겠다. NPA는 예전 LCR, 즉 혁명적공산주의동맹과 많이 다른데 사회보장부분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적, 정치적 정치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 또한 LCR은 정치노선이 다양하지 않았는데 NPA는 다양한 정치노선을 가지고 있는 당이라고 우리들은 주장한다.

우리 NPA에는 과거 전공산당당원들이 공산당을 탈퇴하여 참여한 경우도 있고 사회당, 녹색당의 전당원들도 창당에 참여했으며 특히 여성운동가와 노동운동가들이 당원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물론 당연히 LCR의 해산으로 그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긴 했다.

LCR의 창당배경에는 3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베를린장벽의 붕괴였다. 즉 그 베를린장벽 붕괴 이전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구동유럽 공산주의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 좌익이었는데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에는 즉 20세기말과 21세기초 ‘좌파’라는 개념 자체를 국제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필요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정당이라는 이름을 기반으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뭉쳐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과거 기존의 극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일종의 고리타분한 신념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좌파이념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소리가 높아졌다. 물론 트로츠키파나 전통공산주의파들의 좌익공산주의이념을 전면 거부하는 취지에서 일어난 운동은 아니다. 전통극좌파에서 온 사람들이 전통극좌파이념을 가지고 왔고 노조파라든가 혁명공산주의자들이 새로 모였지만 그 이념만은 과거의 이념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색깔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주장이었다. 혁명적인 좌익운동이나 그런 정당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이념들에 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당의 이념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

으로 모이지는 않았다.

### “유럽헌법조약 반대운동이 NPA 창당에 중요한 계기”

유럽헌법반대운동이 또 중요한 계기였다. 유럽헌법은 정말 구시대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이며 극도로 보수적인 자본주의헌법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유럽헌법은 기업간 경쟁을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파괴하고, 밤에도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해야 하는 그런 자본주의를 보장해주고 또, 국경을 막아서 이민을 반대하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프랑스의 주요정당들은 대부분 유럽통합을 지지한다. 프랑스의 우파정당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좌파인 사회당도 유럽통합에 찬성했다.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대표들도 처음에 유럽통합을 반대하지 않았다. CGT(노동총동맹)는 유럽통합을 반대했다. 그러나 더 모순적인 것은 CGT의 대표들은 유럽통합반대운동을 벌이자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미뤘다. 정치, 경제, 사회계의 인텔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텔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의 찬성자들이었다.

유럽연합헌법에 반대하는 당들은 소위 말하는 규모가 작은 당이었다. 공산당도 지금은 규모가 작아졌다. 공산당을 비롯한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과 노조에서도 SUD(Solidaire Unitaire Démocratique, 연대단결민주노조)처럼 작은 규모의 노조들만이 유럽통합을 반대했다. 이것은 민중운동에 참여하는 매우 극소수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다. 유럽헌법을 한줄한줄 읽어본 이들은 그 정당성을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반대의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헌법읽기운동이 확대돼 이 헌법의 실제적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 결과 90%가 유럽통합반대운동을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고 유럽헌법조약 찬반투표에서 실제 시민투표 결과는 50 대 50으로 나왔다. 시민들이 헌법을 실제 읽고 나서 깨달은 것이다.

50 대 50의 결과는 신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민중의 승리라고 우리 당은 평가했다. 큰 정당들이 대표하는 것이 절반뿐이라면 나머지 절반을 대표하는 정당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절반이나 되는 민중을 대변하지는 취지가 있었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전략적으로 많이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주요원인은 공산당과 LCR의 의견차에서 나오는 분열이었다. 공산당은 사회당과 함께 유럽통합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자고 했다. 우리들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럽통합을 찬성한 사회당과 손을 잡고 일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할 수 없었고, 두 당이 연합할 수 없었다. 그래서 2007년 대선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당들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

2007년 대선에서 공산당은 2%가 안되는 결과를 보이며 크게 실패했고, 반면 공산당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LCR의 대변인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4%의 득표를 얻는 결과를 거두어 승리했다. 공산당의 선거 실패, LCR의 선거 승리가 있었고, 이것은 LCR을 해산하고 NPA를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LCR의 지지자들, 파업노동자들, 노동운동가들,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 등 좌파진영 특히 반자본주의 주장자들은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했다.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그 다른 목소리가 NPA의 전신이다.

수만명의 지지자들이 기존의 LCR과는 새로운 당을 창설하여 새로운 목소리로 새로운 이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LCR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힘을 합쳐 새로운 당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다. 각 도시마다 각 골목마다, 각 집집마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당과 새로운 것을 원하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2007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조금씩 구체화되어 2009년 초 창당했다. 1년동안 1만~1만5000명의 지지자들이 하루를 멀다하고 회의를 하면서 반자본주의, 여성보호주의, 노동권보호주의에 대해 논의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활발하게 토론했다.

NPA의 정책, 즉 노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데올로기주의, 즉 이념에 치중하는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기억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과거가 있고 과거의 기억들이 살

아있는 당이다. 과거 LCR의 이념들이 많이 전달됐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당이다. 역사적인 노동운동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당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유명한 명언을 빌어 말하고 싶다. 철학적인 내재적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우리 당 창당식 때 나온 연설문의 내용중 하나였다. ‘우리는 지난 2세기에 걸쳐 정권을 잡고, 주류를 이루었던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당이 NPA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내려온 과거 우파정권에 반대하고 우파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기존의 운동을, 그 운동이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 깊은 바닥에 흐르는 정신, 노동계급, 혁명계급, 반독재대중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반대정신, 일종의 혁명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NPA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반자본주의당이라고 할 수 있다.

### “지금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

우리 NPA의 시각으로는 현재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경제위기다. 세계의 재벌기업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윤을 점점 더 크게 만들려고하다보니 자연히 노동계급이나, 저소득층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가난에 허덕이게 된다.

이 재정위기를 사탕발림식으로 모면하기 위해 서구정부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지원금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기는커녕 은행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경제스캔들로 감옥에 간 미국의 모은행가에게 지원된 액수가 전세계 빈곤반대운동단체에 지원된 돈을 모두 합친 액수보다 훨씬 많다. 전세계 빈곤반대운동협회가 얼마나 많나. 그 많은 단체의 돈을 합쳐도 이 돈보다 적다. 컨티넨탈이라는 프랑스의 어떤 회사의 노조에서 해고당한 직원들이 데모하고 파업을 했는데 그 운동으로 얻은 일종의 해고보상금이 4만유로밖에 안 된다. 같은 시기에 프랑스정부는 BNP라는 은행에 재정보조금 5억유로를 허락했다. 얼마나 기가 찬 일인가.

그 5억중에 1억은 월급이 지나치게 많은 직업이라고 평가받는 트레이더와 경제위기로 유명은행사장들의 줄어드는 수입을 보상하는 지원금이다. 너무 기가 찬 것은 사실 이 금융위기의 주역들은 은행가들인데 이 은행가들의 줄어드는 수입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그 세금은 시민들이 낸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갈라 부자들의 모자란 배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본주의의 이념들이 맞다고 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에 맞는 말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것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 당의 경제정책은 이런 문제들을 기본으로, 말도 안되는 자본주의를 계속 지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부익부빈익빈현상처럼 부자들이 계속 남기고 있는 이윤을 저소득층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경제정책이다.

우리 당의 3대 경제정책은 첫째, 부당하고 금지, 둘째 최저임금 300유로 인상, 셋째 공공정책,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액 인상이다. ‘그들의 이윤보다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슬로건이다.

### 2010지방선거, 반자본주의정당들과 연합할 수 있지만 연정은 안돼

선거전략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사실 NPA는 노동자를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지 선거에 이기고 지고를 중요시하는 당은 아니다. 그렇지만 선거에 참여한다. 선거에서 2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번째는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며, 두번째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여성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사회당과 독립노선을 걸겠다는 것이다. 즉, 선거에서 사회당과 손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큰 줄기의 전략이 있고, 1차와 2차 선거에서 전략이 세심하게 바뀔 수 있다. 지방선거는 그 지방의 특색이 있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말하기 어렵다. 그 지방의 정치특색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전략이 바뀔 수 있다. 대선은 한가지 노선을 가지고 주요정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는 심지어 동장선거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세분화되어있고 후보자명부가 있기 때문에 특색이 있는 지방마다 주류정책을 따르라고 명할 수는 없다.

내년 3월 지방선거에서는 반자본주의이념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울 것이며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정당들의 주류 이념은 어쨌든 반자본주의이고 그런 반자본주의정당들과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 1차선거에는 당연히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 2차선거에는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불리 공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연합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우익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2차선거에서 연합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 선거가 끝나고 사회당과 통합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

**조덕원** : 2차선거의 연합 가능성은 개인적인 견해인가, 당의 의견인가.

**꾸스팔** : 우파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게 사회당에 모아줄 수는 있다고 본다. 우리 당이 솔직히 너무 작은 당 이니까. 하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 사회당과 손잡고 같이 정치를 하면서 정책을 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 사회당은 신자유주의정당이다. 전략적으로 일종의 잔머리를 쓸 수 있다고 본다. 우파가 못 이기게 2차선거 때 손을 잡고 서로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이념은 사회당과 전혀 다르다. 지금 말한 것은 NPA의 입장이고, 전략이다. 그러나 공산당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궁금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산당은 사회당과는 별개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실제로 프랑스의 시장이나 동장 중에 공산당출신이 많다. 공산당이 그런 지방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선거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다.

국제관계는 질문을 통해서 설명하겠다.

**황혜로** : 발제자에게 박수 부탁한다. 지정토론하겠다. 토론자는 김장민상임연구위원, 이상훈서울시당부위원장이다.

**김장민** : 만나서 반갑다. 선거연합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마지막에 내 나름대로 정리하면 선거연합은 가능하지만 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였다. 다만 내가 볼 때 프랑스의 좌파정당인 공산당이라든가, 좌파당, NPA의 미시적 정책의 차이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다. 내가 궁금한 것은 이름 자체가 반자본주의신당인데 반자본주의의 내용은 무엇이며, 자본주의를 넘어서 대안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델이나 역사적으로는 없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있을 자본주의대안모델의 원리나 개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한다.

### “선거라는 시스템이 문제가 많은 세상을 바꿔줄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꾸스팔** :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다. 자본주의와 다른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두 표현할 용어가 무엇일까 연구하다 반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 NPA이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반자본주의는 자본주의에 반대한 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운동은 노동운동이며 해고금지운동, 노동자조건향상운동 등을 노동자를 지지하는 당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운동을 지지하는 당을 어떻게 보면 진부하고, 역사상 많이 들어본 당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들은 노동자들과 같이 운동하고, 노동자들의 운동을 지지한다. 노동자들이 자본가들보다 훨씬 많고 궁극적으로 자본을 생산하는 원동력은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다.

우리들은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에는 참여한다. 그러나 선거라는 시스템이 문제가 많은 세상을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 선거로 세상을 바꾼 기억이 별로 없는데 대표적인 것이 1936년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런 희망이 실제 실현되기도 했다. 1936년 당시 이론이나 결발림이 아닌 실제 노동자의 좌

파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실제적인 변화가 많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유급휴가제도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유급휴가는 좌파가 정권을 잡은 결과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아달라. 왜냐하면 그때 좌파정권의 정책에서 유급휴가 자체가 없었다. 이 결실은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굶어가며 고생해서 얻은 결과이지 정권을 잡고 있던 좌파정권이 정치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 프랑스의 유명한 유급휴가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얻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 예가 NPA의 철학이다.

우리 NPA의 모델이라면 모델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NPA를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과거에 많았지만 우리 당을 대표할 그런 모델은 없다. 러시아혁명, 스페인혁명, 쿠바혁명을 개인적으로 정치적 이상 혁명으로 삼는 당원들은 많다. 하지만 당을 대표하는 혁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NPA를 베네수엘라의 노선과 많이 연계시켜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NPA의 노선이 베네수엘라의 정치노선과 많이 흡사하고 서로 지지하지만 절대로 같은 노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NPA의 노선은 유일하다.

**김장민 :** 유럽은 한국과 달리 극우에서 중도, 진보(프로그레시브)와 좌파(레디칼)가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중도 좌파와 중도우파가 번갈아가면서 프랑스정권을 잡고 경쟁해왔다. 주변 정당들은 선거연합을 통해 여러 가지 포지션을 취한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존재 속에 좌파(레디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좌파(레디칼)의 역사, 지위 등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좌파(레디칼)의 목적이 사회당과 같은 진보(프로그레시브)를 견제하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자기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연대와 타협을 통해 좌파(레디칼)의 위상을 형성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알고 싶다.

**꾸스말 :** 프랑스의 우파는 중도우파에서 극우파까지 대략 통합된 우파라고 봐도 된다. 사흐코지대통령의 이민 자정책은 극우당의 이민자에 대한 정책과 동일하다. 중도파는 사흐코지쪽으로 합치느냐 아니면 사회당쪽으로 합치느냐는 중간에서 왔다갔다할 뿐이지 정통적인 순수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도파가 사회당과 결합함으로써 얻는 결과는 좌측에 있는 사회당을 우측으로 옮겨가는 것밖에 없다.

좌측의 레디칼 좌파는 3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산당, NPA 그리고 '노동자투쟁'이라고 하는 LO당이다. 엘라트 라디에가 LO당의 대표다. 10년, 15년 전부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토론이 합치느냐 안 합치느냐다. 1999년과 2004년 LCR과 LO에서 항상 나오는 고질적인 질문이 합치느냐 안합치느냐였다. 공산당과 NPA가 합치느냐 안합치느냐는 토론이 있었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합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레디칼정당의 위상을 말하라 하면 단순히 공산당을 들 수 있는데 과거 소련혁명을 이념으로 세워진 당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회당에 가까운 힘없는 정당이 됐다고 우리는 본다. 레디칼정당으로써 공산당의 위상을 말하자면 옛날과 요즘은 다르지만 과거 공산당은 레디칼정당의 대표적 정당이었고, 거의 CGT의 배후정당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쇠퇴해서 아주 규모가 작은 힘없는 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사적 배경은 소련의 붕괴와 프랑스에서의 공산주의정책의 소멸이다. 개인적으로 1969년 정치에 뛰어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공산당이 22%의 득표를 얻는 대단한 당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2007년 대선에서 2%를 얻어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 쇠퇴한 당이다. 우리 시각으로 볼 때 공산당의 가장 큰 문제는 꽤 큰 당인 사회당과 손을 잡으면 혹시 정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모순적인 정책을 펼 것이다. 레디칼주류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정통적인 색을 가장 많이 잃은 당이 공산당이다. 다른 NPA와 노동자동맹, 트로츠키주의 순수파 주류들은 우파를 무너뜨리자는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같은 반자본주의정당끼리 서로를 이기고자 하는 주장은 없다. 그게 공산당과 우리당의 차이점이다.

노동자투쟁당과 NPA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우리당은 여성주의, 녹색주의, 국제주의, 노동권보호주의를 당정책에 포함하고 있고, 노동자투쟁당은 순수러시아혁명주의자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투쟁당은 녹색주의를 당정책에 넣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 NPA는 최근 창당한 신당이므로 기본 정책노선은 있지만 점점 발전되고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투쟁당은 역사가 더 깊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NPA는 여성주의, 녹색주의, 국제주의, 노동자보호주의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9월이나 내년에 있을 당대회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계획이다.

**황혜로 :** 이상훈부위원장의 토론을 듣겠다.

**이상훈 :** 창당 축하한다. 설명을 듣다보니 상당히 고심되는 점이 있다. 어쨌든 정당이라면 우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집권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래디칼한 것은 뚜렷한 반면 그것을 프랑스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시켜나갈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과제라고 본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거대한 소수’ 전략이라는 전체 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 집권노선을 가지고 있다. NPA에서는 향후 집권을 위해 국민들과 합의하고 실천해 나갈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추상적으로라도 답변 바란다.

**꾸스말 :** 우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권을 잡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고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권을 잡음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나는 예전에는 혁명적공산주의동맹 당원이었는데 혁명적공산주의동맹에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확실한 선거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지금 NPA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당이 갓 태어난 당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새로 연구하고, 개발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소리다. 물론 정책의 구체성이나 정책의 수량 등은 갓 태어난 신당이기에 때문에 이전 당에 비해 적다는 것은 인정한다.

우리들이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말하기에는 거북스럽지만 신념이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념이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좌파의 이념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좌파의 전통적인 일관된 이념을 가지고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지 정권을 잡는 것에 욕심을 내서 국민들에게 이랬다저랬다 하는 이중적 모습은 절대로 보여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당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좌파에서 그런 당들이 있었고 실패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지 말자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

우리 당은 노동운동을 하는 당이다. 정치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성된 당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당수인 올리비에 브장스노다.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전혀 정치공부를 한 정치전문가가 아니고 우체국 직원이고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우편함에 편지를 넣는 일을 하고 있다.

입에 발린 멋진 말을 하고 있는 다른 당의 당수들 하는 말보다 가장 효력 있는 말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노동자의 당입니까’ 보다 ‘내가 노동자입니다’라는 말이다. ‘당신들의 당은 사회당’이고 ‘사회당이 노동자들을 위한 당’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당신 월급은 자본가들의 월급과 비슷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위하는 노동자들과 같은 양의 밥을 먹고, 같은 월급으로 돈을 세며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통해 우리 당의 차이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조덕원 :** 인터내셔널에 대해 질문하겠다. 제4인터내셔널, 트로츠키계열의 인터내셔널에 LCR이 가입해 활동했다. 그런데 NPA는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알고 싶다. 그리고 유럽의회선거결과에 만족하는지, 유럽의회선거결과를 성공으로 보는지 실패로 보는지 듣고 싶다.

**“향후 제4인터내셔널보다 더 큰 조직 만들 계획, 공식적으로 제4인터내셔널 참여계획 없다”**

**꾸스말 :** 절반의 성공으로 보고 있다. 물론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2005년 LCR과 LO가 연합해서 나온 결

과와 비교해보면 당연히 2009년 결과는 아주 흡족스럽다. 나는 LCR에 오래 있었는데 LCR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결과를 NPA에서 봐서 매우 만족했지만 새로 가입한 사람들에게서 실망의 소리도 많이 나왔다. 어쨌든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LCR 출신이 아닌 새로 가입한 사람들은 실망을 많이 했다. 이번에 7개 후보자명단을 냈다. 의원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는가. NPA는 이번 선거결과가 올리비에 브장스노의 개인적인 인기로 지지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평가한다. 이번 유럽의회선거결과는 당의 정책과 국민설득도로 나왔다. 우리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노동자들과 젊은 층인데 이번에 노동자들과 젊은 층에서 무투표율이 높았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우파 지지자들이 많은데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았다. 그러나 그 노년층을 분석해 봐도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비교적 많이 얻은 편이다.

물론 말했듯이 혁명적공산주의동맹은 제4인터내셔널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회원이었다. 그러나 NPA는 공식적인 회원이 아니다. 혁명적공산주의동맹이 해산하면서 NPA가 이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없었다. 단지 국제적 운동이나 회의, 컨퍼런스 등에는 참여해도 공식적으로 제4인터내셔널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 앞으로 제4인터내셔널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 계획은 있지만 제4인터내셔널과 관련한 직접적인 계획은 없다.

**조덕원 :** 프랑스좌파당은 인터내셔널계획이 있다. 독일좌파당, 네덜란드사회당 등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NPA가 폭넓게 인터내셔널을 만들려고 한다면 좌파당의 인터내셔널과 NPA의 인터내셔널의 대상이 겹친다.

**꾸스탈 :** NPA는 스코틀랜드 사회당과 포르투갈의 좌파블록과 일종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제4인터내셔널에 참여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 제4인터내셔널보다 더 크고 넓은 조직에 가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디링케와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디링케는 워낙 크고 그 안에 많은 좌파단체들이 있으니 NPA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연대관계는 성립되어 있지 않다. 브라질의 PSOL(사회주의자유당)이라는 정당과는 공식적인 연대를 맺고 있다. 우리 당은 앞으로 미래의 레디칼정당으로서 구체적인 정책, 구체적인 조직망을 창설할 계획은 당연히 가지고 있다.

**황혜로 :** 귀한 시간 내서 발제하고 답변해주신 꾸스탈에게 박수 부탁한다. 이 분이 쓴 책을 선물로 가져왔다.

**조덕원 :** 유명한 책이다. NPA의 역사인데 창당과정을 담은 '놀라운 탄생이야기'라는 책이다. (표지사진) NPA의 올리비에 브장스노다. 매력적인 정치인이다. 민주노동당에 아쉬운 부분이다. <끝>